통합유럽연구 제14권 2집
DOI https://doi.org/10.32625/KJEI.2023.30.307

만들어진 '동방의 프랑스인'
— 레바논 마론파와 프랑스의 기억 —

정 연*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레바논의 마론파 지식인들과 프랑스 낭만파 지식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동방의 프랑스인' 정체성을 탐구한다. 1840년 이집트의 메흐메트 알리 파샤의 실각과 레바논 산지의 정치적 지도자 시하브 바시르 2세의 추방은 그와 정치적·사회적·종교적으로 결속되어 있던 마론파 교회의 위기를 야기했다. 마론파 교회는 시하브 왕조를 복원시키기 위해 기독교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고자 했고, 이에 응답한 것은 로마의 교황청을 대신하여 가톨릭교도들의 보호자를 자처한 프랑스였다. 프랑스 또한 메흐메트 알리의 실각 이후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측의 필요 속에서, 마론파 교회와 프랑스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운명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공통의 역사인 '십자군'에 두었다. 그리하여 태어난 '동방의 프랑스인' 마론파는 레반트에서 프랑스와 함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고, 이슬람에 맞서 싸운 동방의 십자군으로 묘사되었다. 즉, 문화적·종교적·역사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프랑스의 형제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마론파 교회와 프랑스가 정치적 필요로 만들어낸 '동방의 프랑스인'이라는 허구적 실체가 시리아 및 레바논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을 이끌어냈으며, 훗날 식민화에 동원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레바논 마론파, 프랑스 식민주의, '동방의 프랑스인', 십자군, 종교적 담론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생, suuun33@naver.com

차 례

Ⅰ. 서론
Ⅱ. 마론파와 십자군
Ⅲ. 레바논 산지의 구체제 붕괴와 마론파 교회
Ⅳ. '동방의 프랑스인' 만들기
Ⅴ. 결론

Ⅰ. 서론

19세기 오스만 제국은 서구 자본주의의 확장과 유럽 사상의 수용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에 놓여 있었다. 특히 1831년 이집트의 총독 메흐메트 알리 파샤(Mehmet Ali Pasha)[1]가 시리아를 점령하고 유럽 상인들에게 내륙을 개방한 시기부터 동부 지중해의 주요 항구로 부상한 베이루트는 서구 기독교 문화의 온상지였다. 그러나 기독교 문명의 침투는 베이루트와 주변 지역을 특수한 역사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미 1774년 퀴췩 카이나르자 조약(The Treaty of Küçük Kaynarca)[2]부터 1856년 파리 조약(Treaty of Paris)[3]까지, 오스만 제국 내 기독교 신민들의 권리는 서구 열강이 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빌미로 이

1)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이자 이집트 마지막 왕조인 메흐메트 알리 왕조의 창시자.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의 원정군이 이집트에서 철수한 뒤 질서를 수립했으며, 오스만 제국과 분리된 제국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아 근대화와 서구화를 적극 장려했다.

2) 러시아-튀르크 전쟁(1768-1774)의 강화조약. 이 조약의 제14조는 이스탄불 교외의 베이올루(Beyoğlu) 시가지에 '러시아-그리스식' 교회를 지어 러시아 공사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오스만제국 내의 그리스 정교회 교도들을 보호할 권리가 러시아 제국에게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확대 해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은정,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민음사, 2019), 93-95쪽을 참고.

3) 크림 전쟁(1853-1856)의 강화조약. 1856년 3월 30일 파리에서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 및 동맹국(프랑스 제국, 대영제국, 사르데냐 왕국)이 체결했다. 파리 조약의 제9조는 "오스만 제국의 폐하인 술탄은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신민의 복지를 개선하는 칙령을 공포할 것"을 결의하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오스만 제국의 폐하 술탄과 그의 신민들 사이의 관계 또는 내부 행정에 대해 집단적·개별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용되고 있었다[4].

이 같은 흐름 속에서, 1860년 레바논 산지에서 발생한 기독교도 학살은 다시 한 번 서구 열강이 오스만 내정에 간섭할 계기를 제공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의 보호자이자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마론파(Maronite)[5] 기독교도들을 보호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프랑스의 보수적인 정통주의자와 가톨릭주의자들을 통해 발화되었는데, 그들에 따르면 마론파 공동체는 십자군 전쟁에서 프랑스와 함께 기독교를 수호한 동맹이자 형제였다. 즉, 십자군 통치기에 피를 나누며 태어난 '동방의 프랑스인(Français de l'Orient)'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보수 세력의 연민과 지지는 기독교적 온정주의를 표방한 식민주의적 조치에 불과했다. 1830년 7월 혁명이 초래한 국내의 혼란과, 메흐메트 알리의 실각으로 시리아에서 위태로워진 프랑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대리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론파 또한 반대 세력인 드루즈(Druze)[6] 종파로부터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했다. 이러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양측은 '동방의 프랑스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으며, 이 같은 허구적 실체는 훗날 1860년 레바논 산지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

4) 파리 조약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은 1856년 탄지마트 칙령을 발표하여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완전한 평등과 공존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비무슬림을 이등 신민으로 규정하던 법적 차별 조항들을 폐지하고, 관직과 교육 및 병영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은정,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110-114쪽.

5) 시리아에서 태동한 기독교의 한 교파. 교회의 공식 명칭은 안티오키아의 시리아 마론 교회(Antiochene Syriac Maronite Church)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만, 동방의 전례와 전통을 유지하는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해 있다. 마론파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성옥, 「마론파의 종교정체성 담론」, 『중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5)을 참고.

6) 이스마일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 11세기경 시리아 지역이 파티마 칼리파국의 통치를 받았을 때, 이집트의 칼리프 하킴(Hakim)을 신의 화신으로 추앙한 다라지(Darazi)와 함자(Hamza)에 의해 남부 레바논에 설파되었다. 이스마일 분파이지만, 이슬람과는 별도의 종교로 취급된다. Carl Skutsch, *Encyclopedia of the World's Minorities* (New York: Routledge, 2005), pp. 411-412.

1840-60년 레바논 산지의 갈등과 마론파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다룬 연구들은 레바논 내전[7]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레바논 역사학의 권위자인 카말 살리비(Kamal Salibi)는 19세기 레바논 산지가 레바논 민족주의의 발원지이며, '레바논'이라는 민족 및 국가는 마론파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 프랑스와 합작하여 만들어낸 허구적 구성물임을 지적했다[8]. 우사마 마크디시(Ussama Makdisi)는 오늘날 레바논 종파주의(Sectarianism)[9]의 발원지로서 베이루트와 레바논 산지에 집중했다. 마크디시에 따르면, 레바논의 종교 및 종파적 정체성은 19세기 중반 레바논 산지가 오스만과 유럽의 개혁 담론에 개방되었을 때 시작되었다[10]. 1842년 구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정치체의 출현은 기존의 세속 계급이 아닌 종교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11].

본고는 레바논 산지의 세속적인 계급 사회가 종파주의 사회로 변화한 원인이 서구의 개혁 담론에 있었다는 마크디시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필자는 현대 레바논 국가의 위기를 촉발한 근원으로서의 민족주의 또는 종파주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들을 레바논 산지에 이식시킨 프랑스 지식인들의 낭만주의 및 식민주의적 시각에 집중하고자 한다. 알퐁스 마리 루이 드 프라 드 라마르틴(Alphonse Marie Louis de prat de Lamartine)의 『동방여행기』와, 장 조제프 프랑수아 푸줄라(Jean Joseph François Poujoulat)와 조제프 프랑수아 미쇼(Joseph-François Michaud)가 동방을 여행하며 주고받은

---

7)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레바논에서 지속된 내전. 마론파 기독교도 팔랑헤(Falange) 민병대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1989년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에게 동등한 의석수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성문화된 따이프 협정(Taif Agreement)으로 종식되었다.

8) Kamal Salibi, *A House of Many Mansions: The History of Lebanon Re-considered* (London: I.B. Tauris, 1989), p. 230.

9) 종교, 종파, 종족, 정치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단 사이의 적대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본문에서는 종교 및 종파 간의 적대 관계에 중심을 둔다. 종파주의 용어의 다양한 의미와 사용은 Fanar Haddad, "'Sectarianism' and Its Discontents in the Study of the Middle East," *Middle East Journal 71* (2017)을 참고.

10) Ussama Makdisi, *The Culture of Sectarianism: Community, History, and Violence in Nineteenth-Century Ottoman Leban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 2.

11) *Ibid*, pp. 6-7.

서신은 부르봉왕조의 복고 이후 프랑스 내부에서 발흥한 낭만주의의 관점에서 레바논 산지가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위와 같은 낭만파 지식인들의 시각은 이후 마론파 대주교 니콜라스 무라드(Nicolas Murad)와 신부장 아자르(Jean 'Azar) 등 마론파 지식인들의 저서에 흡수되어, 레바논 및 시리아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을 촉구하는 보수 세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본고는 '동방의 프랑스인'이라는 허구적 정체성이 식민주의가 종교에 침투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마론파 교회의 지식인들이 필요에 따라 마론파 공동체의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유기적으로 변화시켜왔음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마론파 교회 및 공동체가 프랑스와 '운명 공동체'로 묶이게 된 19세기의 배경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프랑스가 마론파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프랑스인'이라는 새로운 실체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식민정책에 적극 활용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II. 마론파와 십자군

1. 마론파의 십자군 역사

마론파 연맹(Ligue Maronite)[12]이 출간한 책에서, 앙투안 쿠리 하르브(Antoine Khoury Harb)는 마론파가 "동방에서 로마 교황청을 따르는 유일한 기독교 종파이며, 이는 그들이 왜 십자군의 점령을 환영했는지를 설명한다[13]"고 적었다. 중세의 위대한 역사가이자 예루살렘 왕국의 주교였던 수르

12) 레바논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는 레바논 기독교 마론파 명사들의 민간 비영리·비정치 조직. 마론파 연맹의 회장은 레바논의 대통령 다음으로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마론파 권위자이며, 레바논의 마론파 공동체를 대변할 권리를 가진다.

13) Antwān Khūrī Óarb, *Al-Mawarinah: Tarikh wa-Thawabit* (Beirut: AlRābitah alMārūnīyah, 1998), p. 82; Makram Rabah, *Conflict on Mount Lebanon: The Druze, the Maronites and Collective Mem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p. 56에서 재인용.

(Sur)의 윌리엄(William)[14] 또한 『바다 너머에서 행해진 일의 역사』에서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점령 당시 그들의 진군에 공헌했던 시리아 기독교도들을 언급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1099년 봄 제1차 십자군이 아르까('Arqa)에 진지를 구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무렵, "레바논 지역의 높은 산꼭대기에 살고 있던 시리아 기독교도들이 (십자군의) 성지순례를 축하하고 형제애를 표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왔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리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이 어디인지를 상의했다[15]."

또 다른 십자군 역사가 자크 드 비트리(Jacques de Vitry)[16]는 그의 저서 『동양의 역사』에서 트리폴리 백작령의 국경을 수호하는 데 기여한 레바논 산지의 기독교도들의 훌륭한 궁술을 기록했다[17]. 공헌을 인정받은 일부 마론파 촌장들은 지배자를 의미하는 '라이스(ra'is)'로 불렸으며, 유럽 귀족과 비등한 지위를 누리고 봉토와 소작농들을 소유했다[18]. 한 마론파 사제의 기록에 의하면, 라이스 중 한 명인 키스라(Kisra)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부터 '레바논 산지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십자군 표식이 그려진 검과 갑옷을 하사받았다[19].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암시하는 것은 마론파라는 종

14) 수르의 윌리엄(1130-1186)은 예루살렘 왕국의 전성기 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은 뒤 예루살렘의 대주교를 지냈다. 그가 집필한 『바다 너머에서 행해진 일의 역사(*History of Deeds don beyond the sea*)』는 십자군에 중요한 역사서 역할을 했다.

15) William of Tyre, *History of Deeds done beyond the sea*, Vol.1, translated by E. A. Babcock, A. C. Kr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3), p. 330.

16) 자크 드 비트리(1160.70-1240)는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연대기 작가로, 프랑스의 수사 신부였다. 1214년 악코(Akko, Acre)의 주교로 선출되었고, 1229년에는 추기경이 되었다. 그의 저서 『동양의 역사(*Historia Orientalis*)』는 수르의 윌리엄의 저서와 마찬가지로 십자군에 중요한 역사서 역할을 했다.

17) James of Vitry, Historia orientalis, ed. Jean Donnadieu (Turnhout, 2008), p. 314; Kevin James Lewis, *The Counts of Tripoli and Lebanon in the Twelfth Century: Sons of Saint-Gilles* (New York: Routledge, 2017), p.132에서 재인용.

18) Kamal Salibi, "The Maronites of Lebanon under Frankish and Mamluk Rule(1099-1516)," *Arabica*, no.4 (1957), p. 291.

19) Kamal Salibi, *Maronite Historians of Medieval Lebanon* (Beirut: American University in Beirut Press, 1959), pp. 51-53.

교 집단이 모두 가톨릭 군주에게 충성하고 '동방의 십자군'으로서 행동했다는 것이다.

레바논 역사가 카말 살리비는 서구의 십자군 역사서뿐만 아니라 마론파 자체의 역사서를 연구하여 순수한 로마 가톨릭인 '동방의 십자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앞서 언급한 두 서구 십자군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론파의 특징은 이단 교리를 따른다는 것이었다. 수르의 윌리엄은 마론파 공동체가 50여 년 동안 마로(Maro)라는 인물의 이단 교리를 따랐으나, 약 1180년경 세 번째 라틴 총대주교인 안티오키아(Antiochia)의 아이머리(Aimery)의 인도로 올바른 정신을 회복하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왔다고 기록했다[20]. 살리비는 마론파 교회가 이같이 서구의 기록에 남겨진 '이단' 혐의를 벗고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체적인 역사학을 발전시켰으며, 공동체 내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나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21].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은 최초로 십자군 시기부터 15세기까지의 마론파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전부 수집하고 엮은 지브라일 이븐 알낄라이(Jibra'il Ibn al-Qila'i)이다. 그는 가장 초기의 마론파 역사가로, 마론파 교회가 일찍이 5세기에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여 로마 교회와 신앙을 일치시켰다고 주장한 최초의 마론파 사제였다[22]. 알낄라이는 마론파가 12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로마 가톨릭을 따르게 되었다는 윌리엄의 기록에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고드프루아 드 부용(Godfroy de Bouillon)이 위대한 기독교도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교황 파스칼리스 2세(Paschalis II)에게 특사를 보냈는데, 이때 마론파 총대주교인 요셉(Joseph al-Jirjisi) 또한 그들과 함께 특사를 보냈다[23]. 이 축하가 전달되자 교황은 미트라(Mitre)[24]와 팔리움(Pallium)[25]을 하사했다[26]. 알낄라이

20) William of Tyre, *History of Deeds done beyond the sea*, Vol.2, p. 458.
21) Salibi, *Maronite Historians of Medieval Lebanon*, p. 21.
22) Matti Moosa, *The Maronites In History* (New Jersey: Goergias Press, 2005), p. 6.
23) Salibi, *Maronite Historians of Medieval Lebanon*, p. 46.
24) 주교가 의식 중에 착용하는 모자.
25) 교황과 관구장 대주교가 제의 위에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는 이 일화를 통하여 마론파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었음을 교황에게 공언받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알낄라이가 이 기록을 남겼을 당시 마론파 총대주교 요셉과 교황 파스칼리스 2세의 교류를 증명해줄 문헌은 존재하지 않았다[27].

'마론파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17세기 역사가 이스티판 앗두이히(Istifan ad-Duwayhi)는 최초로 마론파 공동체의 역사를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사실로서 엮고자 한 인물이었다[28]. 그의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마론파의 역사』에서 앗두이히는 마론파 공동체의 역사 및 종교적 기원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는데, 앞서 알낄라이가 정확한 연도 없이 기록했던 마론파 총대주교 요셉과 교황 파스칼리스 2세의 교류를 1100년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알낄라이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29]. 마론파의 실증주의적 역사학에 기반이 되는 앗두이히의 기록 또한 알낄라이의 것을 재인용하거나 잘못된 연도를 수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역사적 근거가 결여된 십자군 시기의 일화들은 마론파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전용되었으며, 이후 마론파 역사가들에게 꾸준히 인용되어 '역사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살리비는 윌리엄의 기록대로 1180년 마론파 대주교 및 일부 주교들이 로마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마론파 공동체 전체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루돌프 히스탠드(Rudolf Hiestand) 또한 윌리엄이 언급한 1180년 사건은 단지 교리에 대한 합의의 시작일 뿐이며, 오직 트리폴리 백작령의 해안 도시와 예루살렘 왕국의 북부 베이루트에 거주하는 마론파 사제들만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혔다[30]. 따라서 이것은 마

양털 띠. 주교 임무의 충실성과 교황 권위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교황청과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 표지이다.

26) Salibi, *A House of Many Mansions*, p. 93.

27) Kamal Salibi, "The Maronite Church in the Middle Age and its Union with Rome," *Oriens Christianus,* no.40 (1956), pp. 92-93.

28) Salibi, *Maronite Historians of Medieval Lebanon*, p. 89.

29) *Ibid*., p. 46.

30) Rudolf Hiestand, "Die integration Der Maroniten in Der römische Kirche," *Orientalia Christiana Periodica* 54 (1988), pp. 119-152; Lewis, *The Counts of Tripoli and Lebanon in the Twelfth Century*, p. 249에서 재인용.

론파 교회와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레바논 산지에 거주하는 마론파 공동체를 포함하는 사건도 아니다. 실제로 1180년 이후로도 마론파 공동체는 로마 교회와의 연합 또는 프랑크인들의 지배에 찬성하는 '연합파'와 반대하는 '반연합파'로 분열되어 있었다[31].

이 같은 분열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프랑크인들이 레반트에서 축출된 이후부터였다[32]. 레바논 산지는 다시 이슬람 제국이라는 적대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때때로 파견되는 맘루크 군대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1367년 총대주교 지브라일(Jibra'il)이 화형에 처했을 때 맘루크의 박해는 그 절정에 달했다[33]. 이처럼 이슬람의 위협이 거세지자 그들은 분열을 극복하고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2. 십자군 이후 마론파와 로마의 연계

십자군 축출 이후 마론파와 로마의 연합이 재공인된 것은 1439년 피렌체 공의회에서였다. 마론파 교회의 총대주교인 요한(John al-Jaji)은 피렌체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는 프란체스코회 수사 후안(Fra Juan)에게 마론파 총대주교와 주교들이 피렌체 공의회의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서약한 편지를 교황 에우제니우스 4세(Eugenius IV)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후안은 요한을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로 임명하는 서신과 미트라를 가지고 돌아왔다[34]. 이후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이 로마 교황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베이루트에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그들의 '이단적'인 전례들을 로마식으로 수정시켰다[35]. 1584년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Gregorius XIII)가 로

31) 1230년 프랑크인들이 마론파 기독교도들과 교류하기 위해 이용한 두 지역 브샤리(Bsharri)와 알무나이티라(al-Munaytira)에서 비블로스의 프랑크 영주에게 대항하는 반프랑크 폭동이 일어났다. 마론파 총대주교 다니엘(Daniel of Hadshit)이 사망한 1282년에는 연합파와 반연합파가 각자 다른 후계자를 선출하기도 했다. Lewis, *The Counts of Tripoli and Lebanon in the Twelfth Century,* p. 134; Salibi, "The Maronite Church in the Middle Age and its Union with Rome," p. 97.

32) *Ibid*., p. 93.

33) Rabah, *Conflict on Mount Lebanon: The Druze, the Maronites and Collective Memory*, p. 55.

34) Matti Moosa, *The Maronites In History*, pp. 229-230.

마에 마론파 대학을 설립했다.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앗두이히처럼 로마 교회의 권위 아래 마론파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마론파 교회와 로마의 긴밀한 연결은 레바논 산지의 권력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약 1590년경 드루즈 종파인 마안(Ma'an)[36] 가문의 파크룻딘 2세(Fakhr al-Din II)가 슈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고, 오스만 정부로부터 남부 레바논 산과 시돈 및 베이루트 산자크(Sanjak)[37]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에 베카(Beqaa) 계곡까지 통치권을 확장하여, 1607년에는 오늘날의 레바논 영토 대부분을 지배했다. 파크룻딘 2세는 오스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종파의 가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뿐만 아니라, 토스카나(Tuscany) 공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전개했다[38]. 그는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 재배를 장려하고 실크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재배에 동원된 마론파 공동체는 북부 레바논의 키스라완 지역에서 슈프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다[39].

이 시기의 마론파 교회 및 공동체는 가톨릭 선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토스카나와 레바논 산지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40]. 당시 로마 교회는 토스카나 공국의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메디치 가문은 오스만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드루즈의 아미르(Amir)[41]가 오스만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는 데 필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후원했다. 파크룻딘 2세 또

35) Salibi, "The Maronite Church in the Middle Age and its Union with Rome," pp. 100-101.

36) 슈프(Chouf) 지역의 데이르 알까마르(Deir al-Qamar)를 거점으로 한 드루즈 종파의 가문. 1590년대부터 레바논 산지 및 베이루트를 다스렸다. 약 100년 동안 오늘날 레바논 영토의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으나, 1697년 아미르 아흐메트(Ahmet)가 영토를 물려줄 남자 후손 없이 사망하자 모계 후계자인 시하브(Shihab) 가문의 바시르 1세(Bashir I)가 아미르 직을 물려받아 통제권을 유지했다. 본고는 이 두 왕조가 레바논 산지에서 누린 자치권과 권력의 연속성을 의미하기 위해 마안-시하브 왕조로 표기한다.

37) 오스만 제국의 행정구역.

38) Philip K. Hitti, *A Short History of Lebanon* (London: Macmillan Education, 1965), p. 8.

39) Salibi, *A House of Many Mansions*, p. 105.

40) Fawwaz Traboulsi, *A history of Modern Lebanon* (London: Pluto Press, 2007), p. 6.

41) 이슬람 세계에서 지방 군주의 칭호

한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기 위해 기독교도인 마론파와 적극적인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42]. 1608년에는 슈프 산의 땅을 마론파 총대주교 요한 마클루프(John Makhluf)에게 기증하여 그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드루즈 아미르가 마론파 교회에 땅을 기증한 최초의 사례였다[43].

1611년에는 마론파 주교 지르지스(Jirjis)가 교황과 토스카나의 대공과 함께 반오스만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아미르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고 떠났다. 그러나 이 소식이 이스탄불에 전해지자 오스만 정부는 레바논 산지를 다시 이스탄불의 통제에 놓기 위해 다마스쿠스의 하피즈 아흐메트 파샤(Hafiz Ahmet Pasha)를 파견했다[44]. 1613년 술탄 아흐메트 1세(Ahmet I)가 파크룻딘 2세를 레바논 산지로부터 추방했을 때, 그가 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곳 또한 토스카나였다. 코시모 2세(Cosimo II) 대공은 그를 환영하고 궁전 같은 저택을 제공했다[45].

이처럼, 16세기가 되어서야 기술되기 시작한 마론파의 역사서들은 그들 교회와 공동체에게 가해진 '이단' 혐의를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십자군 시기의 일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살리비나 무사(Moosa) 등의 역사가들이 밝혀냈듯, 마론파 공동체가 정통 교리를 따르는 '단일한 종교 집단'이 된 것은 알낄라이를 선두로 로마화된 사제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한편, 16세기 레바논 산지의 지도자 파크룻딘 2세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이탈리아 도시 국가 및 교황과 동맹을 맺기 위해 마론파 교회 및 공동체와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 토스카나의 메디치 대공 또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마론파라는 중개인을 통해 레바논 산지의 드루즈 아미르에게 접근했다. 로마화된 마론파 교회는 서구의 기독교 세계와 오스만 제국의 레반트를 이어주는 교량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18세기까지 연결되어 레바논 산지의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

42) *Ibid*, p. 6.
43) Salibi, *A House of Many Mansions*, pp. 146-147.
44) Traboulsi, *A history of Modern Lebanon*, p. 6.
45) Hitti, *A Short History of Lebanon*, p. 162.

Ⅲ. 레바논 산지의 구체제 붕괴와 마론파 교회

1. 시하브 바시르 2세의 이마라(Imara)

마안 가문의 아미르 파크룻딘 2세가 수립한 이후 약 2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준자치 주(州) 이마라(Imara)[46]는 바시르 2세의 즉위와 함께 위기를 맞았다. 당시 이마라는 이끄타(Iqtaʿ)라는 봉건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공통의 군주에게 종속된 다수의 세습 귀족(Muqataʿji, 무까타지)들이 군주로부터 영토(Muqata, 무까타)와 그에 대한 권위를 분배받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 세습 영토를 물려받은 무까타지들은 아미르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지배자로서 영토 거주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했다.

바시르 2세는 저명한 드루즈 가문의 셰이크(Shaykh, 촌장)인 바시르 줌블라트(Bashir Jumblatt)의 도움을 받아 다른 시하브 가문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아미르직을 확보했다. 그리고 바시르 2세는 훗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친척들을 투옥하거나 살해하여 지위를 보전했다. 시하브 내의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한 뒤, 바시르 2세는 유력 가문의 드루즈 셰이크들을 서로 대적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절대적인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47]. 그리고 부유한 마론파 명사들로부터 드루즈 가문에 대한 견제 정책을 지지받기 위해 마론파로 개종하고 발표했는데, 이에 반발한 드루즈 셰이크들은 줌블라트를 중심으로 반대파를 형성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바시르 2세는 1825년 악코의 압둘라 파샤(Abdullah Pasha)와 협력하여 반란의 주동자인 줌블라트를 교수형에 처하고, 그들로부터 습득한 영토를 마론파 친족들 또는 부유한 상인들에게 할당했다[48]. 이처럼 바시르 2세가 독재적인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동안, 무까타지들은 아미르에 대한 반발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시하브 아미르의 책략을 따로 떼어 놓더라도, 무까타지들의 정치 및 사회

---

46) 아미르가 다스리는 땅. 국내 연구에서는 토후국(土侯國)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47) Salibi, *A House of Many Mansions*, p. 109.

48) Carol Hakim, *The Origins of the Lebanese National Idea, 1840-192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pp. 21-22.

적 기반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다. 18세기 산지의 경제는 점차 자급자족적 경제에서 실크 집약 재배로 변화하여 레바논 산 경작지의 80퍼센트가 실크 생산에 동원되었다[49]. 그러나 당시 실크 생산, 자금 확보, 중개, 수출은 모두 기독교도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크 생산 및 수출로 부를 획득한 마론파 상인들은 무까타지의 정치 및 사회적 권력의 근간인 영토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레바논 산지의 부는 무까타지들로부터 기독교 상인들에게로 이동했다.

당시 생산된 실크들은 베이루트와 시돈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수출국은 프랑스였다[50]. 레바논의 기독교 상인들과 프랑스의 상호 이익은 1536년의 통상조약(Capitulation)으로 확립되었다. 새로운 술탄이 즉위할 때마다 갱신된 이 통상조약은 프랑스 상인들에게 여행 및 상업,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했다[51]. 1740년에는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조약은 로마 교황청을 대신하여 프랑스가 로마 가톨릭의 보호자이자 대변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52]. 19세기가 되자 이 통상조약이 보장하는 법적·경제적 특권(베라트, berat)은 프랑스의 상업 및 영사 활동에 동원된 기독교도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비무슬림과 무슬림 간의 경제적 격차를 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마론파 교회 또한 꾸준히 세력을 길러오고 있었다. 실크 재배와 무역이 계속 증가하면서 마론파 소작농들을 자신의 영토로 끌어들이려는 무까타지들의 노력도 계속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필수적인 일은 수도원을 짓는 것이

---

49) Kais Firro, "Silk and Agrarian Changes in Lebanon, 1860-1914,"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22, No.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51; Hakim, *The Origins of the Lebanese National Idea, 1840-1920*, p. 24에서 재인용.

50) William R. Polk, *The Opening of South Lebanon, 1788-1840: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West on the Middle Eas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 73.

51) Buğra Poyraz, "The Defi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Protectorate of France in the Ottoman Lands," *Eskişehir Osmangazi Üniversitesi İlahiyat Fakültesi Dergisi* 8.1 (Eskişehir: Eskişehir Osmangazi Üniversitesi, 2021), p. 289.

52) Yann Bouyrat, *Devoir d'Intervenir?: l'intervention humanitaire de la France au Liban, 1860* (Paris: Vendémiaire, 2013), p. 57.

었다[53]. 드루즈 및 마론파 무까타지들은 마론파 교회에게 수도원을 세울 영토를 제공했고, 이는 무까타지의 부가 마론파 평민들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부터 마론파 사제들은 지역 무까타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시하브 왕조와 시돈의 프랑스 총영사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54].

2. 1831-1840 이집트의 시리아 점령

드루즈 무까타지들의 운명은 1831년 메흐메트 알리와 그의 아들 이브라힘 파샤의 시리아 점령과 함께 더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시 메흐메트 알리는 영국 및 러시아 등의 유럽 열강들이 이집트의 영토 확장을 반기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의 확장 정책이 서구 기독교 세계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브라힘 파샤는 기독교도 및 유대교도들에게 종교에 기반을 둔 불평등을 철폐하겠다는 정책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독교도 지도자인 바시르 2세와 동맹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기독교도들의 반응은 메흐메트 알리와 이브라힘 파샤가 기대했던 것처럼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집트 정부는 기존의 세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는데, 파르다(fardah) 또는 페르데(ferdé)로 불린 인두세였다. 이에 따라 1834년부터 12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종교에 상관없이 15 피아스터(piaster)에서 500 피아스터를 내야 했다[55].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통치기 동안 기독교도들은 처음으로 지즈야(jizya)[56]를 내도록 강요받았다[57]. 이는 레바논 산지의 기독교도들이 누렸던 유일한 특권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

53) Mouannes Mohamad Hojairi, "Church Historians and Maronite Communal Consciousness: Agency and Creativity in Writing the History of Mount Leban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1), p. 119.

54) *Ibid*, p. 120.

55) Asad Jibrail Rustum, "Syria under Mehemet Ali,"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Vol. 41, No.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24), p. 43.

56) 딤미 제도 하에 오스만 제국의 비무슬림 신민들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세.

57) Polk, *The Opening of South Lebanon*, 1788-1840, p. 155.

또한, 이브라힘 파샤는 수단과의 전쟁 및 시리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반란진압에 동원할 신병들을 강압적으로 징집했는데, 이는 레바논 산지 거주민들이 이집트 통치에 저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징병의 공포가 레바논 산지를 둘러싸자 주민들은 일부러 신체를 훼손하거나 술탄의 영토로 도망쳤다. 특히 드루즈 인구는 이집트 통치기 동안 현저히 줄어들었다[58].

반이집트 정서는 곧 1840년 5월 메흐메트 알리에 대한 대대적인 반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시하브와 이빌라마(Abillama') 아미르, 그리고 기독교 및 드루즈 셰이크들 또한 반란에 가담하거나 반란군을 지원했다[59]. 그러나 바시르 2세와 이집트 정부는 기독교 신병들을 배치하여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반란은 7월 초 빠르게 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스만과 영국 및 오스트리아의 함대가 베이루트 해안에 나타나면서 반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3. 레바논 산지의 혼란과 이중 까이마깜 체제(Dual Qaimaqamiyya)

메흐메트 알리의 시리아 점령은 오스만 제국의 평화만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유럽 협조체제(Concert of Europe)[60] 하의 유럽의 평화 또한 위협했다. 프랑스 정부는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려는 유럽 열강들의 7월 15일 런던 조약(London Convention)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메흐메트 알리의 대의를 지지했다. 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원은 장드디외 술트(Jean-de-Dieu Soult) 정부가 오스만 정부에게 메흐메트 알리가 최소한 시리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로도 드러난다[61]. 레바논 산지 내부에서도 프랑스 수도사들이 이

58) 이집트 통치기를 포함한 바시르 2세의 치하에서 드루즈 인구는 15만에서 6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었다. Hakim, T*he Origins of the Lebanese National Idea, 1840-1920*, p. 23, 각주 33번 참고.

59) Rustum, "Syria under Mehemet Ali," p. 25.

60) 1792년부터 1815년까지 지속되었던 연합 전쟁(Coalition Wars)이 끝난 이후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영국이 '힘의 균형'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 Ozan Ozavci, *Dangerous Gifts: Imperialism, Security, and Civil Wars in the Levant, 1798-186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 8.

61) Ozavci, *Dangerous Gifts*, p. 215.

미 이집트군에 협조하고 있었으며[62], 외무장관 아돌프 티에르(Adolph Thiers)는 라자로회 수도원장인 에티엔느(Étienne)를 레바논 산으로 파견하여 유럽 열강들의 개입을 방해하려 했다[63].

프랑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1840년 9월 영국의 해군 제독 찰스 네이피어(Charles Napier)가 지휘한 연합 함대가 베이루트의 이집트군 진지를 포격하고 악코를 접수했다. 10월 14일에는 바시르 2세가 영국군에 공식적으로 항복했고, 이집트 정부에 협력한 죄로 몰타, 이후에는 이스탄불로 추방당했다. 1841년 1월이 되자 이브라힘 파샤의 이집트군은 시리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64].

유럽 열강의 도움으로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오스만 정부는 바시르 까심(Bashir Qasim)을 새로운 아미르로 임명했다. 하지만 바시르 2세의 치하 동안 불어났던 시하브 왕조에 대한 무까타지들의 반발심은 이집트 정부의 독재와 탄압으로 배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정부에 복종하지 않은 죄목으로 핍박받고 레바논 산지를 떠났던 드루즈 셰이크들은 메흐메트의 실각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영토가 마론파 기독교도들에게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해야 했다.

이 같은 영토 분쟁은 곧 1841년 9월 사태로 발전했다. 데이르 알까마르의 마론파와 드루즈 사냥꾼들 사이에서 영토를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자 분개한 드루즈 셰이크들이 바시르 까심을 포위하고, 이를 막아서는 마론파 사제들을 살해했다[65]. 뒤늦게 사태에 개입한 오스만 제국은 레바논 산지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1842년 바시르 까심을 폐위하고 레바논 산지에서 추방했다. 그리고 오마르 파샤(Omar Pasha)를 레바논 산지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마침내 약 250년간 유지되었던 마안-시하브 왕조의 이마라가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

62) Rustum, “Syria under Mehemet Ali,” p. 55.

63) Ozavci, *Dangerous Gifts*, p. 220.

64) 유진 로건, 이은정 역, 『아랍: 오스만 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 (까치, 2016), 119쪽.

65) Charles Henry Churchill, *The Druzes and the Maronites Under the Turkish Rule from 1840 to 1860* (London: Bernard Quaritch, 1862), pp. 45-51.

구체제의 붕괴는 레바논 산지와 그곳에 거주하는 공동체를 재개념화하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켰다[66]. 오스만 정부는 이집트군이 철수한 이후 발생한 충돌과 혼란을 핑계로 레바논 산지를 오스만의 직접통치 하에 두고자 했으나, 유럽 열강들은 명백하게 반기독교주의자이자 친드루즈파인 오마르 파샤의 통치를 반대했다. 이때 오스트리아의 정치가이자 외교가인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Klemens von Metternich) 후작이 '이중 까이마깜 체제(Dual Qaimaqamiyya)'라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제안했다. 이는 베이루트-다마스쿠스 길을 기준으로 레바논 산지를 반으로 나누어 북쪽은 기독교 까이마깜(qaimqam, 부총독)에게, 남쪽은 드루즈 까이마깜에게 배정하는 체제였다. 이 두 까이마깜들은 오스만이 임명한 시돈 총독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것이었다. 유럽 열강들과 오스만 대표들의 동의하에 이중 까이마깜 체제가 1843년 1월에 실행되었고,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67].

그러나 이중 까이마깜 체제가 간과한 것은 슈프를 비롯한 남부 레바논 지역에 이미 마론파-드루즈 혼합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구체제가 보장했던 무까타에 대한 무까타지들의 정치적 권위는 구체제와 함께 붕괴했다. 따라서 무까타의 거주민들이 종파와 상관없이 세속 권력인 봉건 영주의 통제를 받는 상황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종교의 평등을 위시한 서구 열강의 새로운 행정체제는 각 종파를 대표할 까이마깜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는 '종교 및 종파적 정체성의 강화'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또, 이중 까이마깜 체제에 따른 두 종파간의 갈등은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마론파와 드루즈를 지원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1740년 오스만 제국과의 통상조약으로 가톨릭교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확인받은 프랑스는 마론파를 후원한 반면, 마론파-프랑스의 관계를 경계한 영국은 드루즈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이제 두 종파의 운명은 서구 열강들과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 중에서도 마론파 교회와 프랑스는 더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66) Makdisi, *The Culture of Sectarianism*, p. 67.

67) William Harris, Lebanon: *A History, 600-20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51.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구체제의 붕괴로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마론파 교회가 시하브 왕조를 복원시키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에 화답한 것은 메흐메트 알리의 실각 이후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재확립해야 했던 프랑스였다. 레바논 산지의 위기에서 양측은 ‘동방의 프랑스인’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었다.

Ⅳ. ‘동방의 프랑스인’ 만들기

1. 낭만파 지식인들이 바라본 레바논 산지와 마론파

19세기 초반은 오스만 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도 혼란의 시기였다. 1815년 부르봉 왕조의 복고는 27년간의 혁명의 시대의 끝을 알렸다. 왕당파와 보수적인 가톨릭 세력이 프랑스의 정치 무대를 쟁취하면서 정치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 낭만주의가 공공연하게 발화되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으로 붕괴했던 앙시앵 레짐을 재건하고 왕조의 연속성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발전시킨 ‘가톨릭’ 수사법은 레바논 산지의 트리폴리 백작령과 십자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프랑스 최초의 낭만파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알퐁스 라마르틴[68]이다. 라마르틴은 1832-1833년 동안 동방을 여행하며 시집 『동방여행기(*Voyage en Orient*)』를 집필했다. 그는 총 4권의 여행기 중에서 2권 이상의 분량을 레바논에서의 경험에 할애했는데, 그의 책에서 레바논 산지는 “초기의 순수한 기독교 시대에 대한 상상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곳[69]”으로 제시되었다. 그에 따르면, 레바논 산지는 “이미 준비된 식민지(une colonie toute faite)[70]”였으며, 마론파는 “메흐메트 알리의 경이로움을 쉽게 갱

68) 프랑스 낭만파 시인이자 정치인. 1820년 그의 〈명상 (瞑想) 시집〉 발표는 프랑스 시의 역사상 한 시기를 긋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으며, 이후 낭만파 시인들의 스승이 되었다. 또 그는 외교관과 정치가로서도 활약하여, 1848년에는 프랑스 임시 정부의 외무대신을 지냈다.

69) Alphonse de Lamartine, *Voyage en Orient, 1832-33*, Vol. II, (Paris, 1835), pp. 456-457.

신할, 시리아에 독실한 기독교 국가를 재건함으로써 무역이 쇠퇴했던 지중해를 풍요롭게 하고 동양을 부활시킬[71]"공동체였다.

『십자군사(*Histoire des Croisades*)』를 공동 저술한 조제프 미쇼와 조제프 푸줄라의 서한에서도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푸줄라는 마론파 공동체와 만남을 상기하며, '십자군'에 유래한 마론파의 프랑스를 향한 오랜 사랑에 대해 기록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군이 시리아를 정복하기 위해 침공한다면 6만 명의 마론파 전사들이 우리 (프랑스의) 깃발 아래 레바논 고지에서 돌진할 것[72]"이었다. 그는 또한 마론파가 프랑스의 알제(Alger) 함락 또한 진정으로 기뻐했음을 주장했는데, 이 야만의 도시가 몰락하는 것을 기념하며 한 마론파 시인이 작성한 시 속에서 알제 함락은 자유로워진 바다로 가는 길에서 (십자군의) 흰 깃발이 이슬람의 붉은 깃발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73]. 그리고 푸줄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한 끝에, 마론파를 "동방의 프랑스인(Français de l'Orient)[74]"으로 정의했다.

비록 마론파 교회와 공동체가 레바논 산지의 유일한 로마 가톨릭 종파는 아니었지만[75], 그토록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은 이유는 시하브 왕조의 레바논 산지가 이슬람의 땅에서 '기독교 민족'으로서 자치권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랑크인들은 아주 오래 전 이슬람에게 패배하여 레바논 산지를 떠나야 했지만, 그날의 동맹인 마론파는 여전히 그곳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낭만파 시인들은 동방의 여행을 통하여 레반트에 남은 십자군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그 스스로 '온건한 십자군(Gentle Crusade)[76]'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건한 십자군'의 경험은 이후 레바논 산지가 정치적 혼란 속으로 끌려들어갔을 때 많은 프랑스인의 종교적 정서를 자극하

70) *Ibid*, pp. 460-461.
71) *Ibid*, pp. 460-461.
72) *Ibid*, p. 326.
73) *Ibid*, p. 326.
74) *Ibid*, p. 326.
75) 멜키테스 그리스 가톨릭교회(Melkite Greek Catholic Church)가 1683년,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Armenian Catholic Church)가 1721년에 각각 로마 교회와 연합을 맺었다. Salibi, *A House of Many Mansions*, pp. 137-138.
76) Makdisi, *The Culture of Sectarianism*, p. 16.

는 담론을 생성해냈다.

2. 마론파의 정체성 변화

메흐메트 알리의 실각과 함께 아돌프 티에르가 외무성에서 물러나자, 그 뒤를 이은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보전하는 유럽 협조체제의 합의를 받아들였다. 기조는 레바논 산지의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된 오마르 파샤의 통치에 반대하긴 했지만,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시하브 왕조를 복원시키려는 마론파 교회의 대의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바시르 까심의 아들인 아민 시하브(Amin Shihab)가 다시 순니파 무슬림으로 개종을 한 뒤로는 더욱 신중하고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77].

마론파 사제들은 기조의 외무성이 마론파의 대의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지 않자 직접 여론을 바꾸기 위해 지중해를 건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라오디케이아(Laodicea)의 대주교이자 바티칸의 마론파 대표 사제인 니콜라스 무라드이다. 그는 1844년 파리에서 『마론파 국가의 기원과 프랑스, 드루즈 국가 및 다양한 레바논 산지의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출판했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된 최초의 마론파 역사서였다. 이후 레바논 민족주의 발상의 기원이 되는 이 짧은 팜플렛은 국왕인 루이 필립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무라드는 도입부에서 "생 루이(Saint Louis)의 시기부터, 프랑스의 기독교 왕들은 마론파에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왔다[78]"는 것을 공손하게 상기시키며, 프랑스와 마론파의 "도덕적인 동맹[79]" 관계가 십자군 시기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의 기술에 따르면, 1249년 생 루이가 십자군 전쟁을 위해 키프로스(Cyprus)에 상륙했을 때 마론파는 이집트 대신 '시리아'를 정복하도록 조언했다[80]. 그러나 생 루이는 이집트를 선택했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77) Ozavci, *Dangerous Gifts*, p. 275.

78) Nicolas Murad, *Notice Historique sur l'Origine de la Nation Maronite et sur ses Rapports avec la France, sur la Nation Druze et sur les diverses populations du Mont Liban* (Paris: A. Le Ciére, 1844), p. 3.

79) *Ibid*, p. 23.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만 했다. 쓰라린 패배를 안고 생 루이가 악코에 도착했을 때, 레바논의 아미르는 생 루이에게 25,000명의 사람들과 예물 및 양식을 보내어 그를 돕도록 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프랑스 군주는 1249년 레바논 산의 아미르와 주교들에게 마론파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는 서한을 보냈다[81].

주교 무라드가 그의 팜플렛에서 생 루이의 일화를 강조한 이유는 생 루이가 유일하게 시성된 프랑스의 왕이자, 십자군 도중 목숨을 잃은 가장 '가톨릭'스러운 왕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이다[82]. 뿐만 아니라, 생 루이 일화에 대한 무라드의 기술은 지난 몇 년간 레바논 산지의 상황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프랑스는 레바논 산지의 마론파를 선택하여 시리아를 정복하는 대신, 이집트의 메흐메트 알리를 선택하여 프랑스의 대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군주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론파의 지도자야말로 프랑스의 진정한 벗이자 동맹이었다.

같은 시기에 파리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마론파 인물로는 신부 장 아자르가 있다. 아자르 신부는 1846-1847년 파리에서 지내는 동안 마론파의 역사를 작성했는데, 그의 저서는 5년 뒤 『아자르 신부의 아랍어 사본에 따른 마론파』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83]. 그의 책자에서는 그 무엇보다 마론파가 프랑스인이라는 주장이 반복되었다. 그는 제2장에서 소개되었던 예루살렘 수복 후 마론파 총대주교 요셉과 고드프루아 드 부용이 교황 파스칼리스 2세에게 특사를 보낸 일화를 기록하면서, "마론파는 전장에서 프랑스인과 피를 섞으며 사실상 프랑스인이 되었다[84]"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술은 16세기에 로마와의 연계 또는 마론파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십자군 일화들이 '프랑스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

80) *Ibid*, p. 24, 1번 각주.

81) *Ibid*, pp. 23-26.

82) Hojairi, "Church Historians and Maronite Communal Consciousness: Agency and Creativity in Writing the History of Mount Lebanon," p. 138.

83) Hakim, *The Origins of the lebanese National Idea*, pp. 62-63.

84) Père Azar, *Les Maronites d'après le manuscrit arabe du R.P Azar* (Cambrai: F. Deligne et E. Lesne, 1852), p. 48.

그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레바논 산지는 "아시아에 이식된 유럽의 식민지[85]"로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무라드와 아자르의 역사 기술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그들의 주장과 담론이 19세기 초반 프랑스 낭만파 시인들의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 변화는 순전히 마론파 교회의 주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십자군 시기에 대한 향수, 동맹 관계의 강조, 프랑스화 또는 유럽화된 '민족',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와 같은 단어 선택은 무라드와 아자르가 라마르틴으로 대표되는 낭만파 지식인들의 저술을 참고문헌으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은 서구 낭만주의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시각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투영시켰다.

마론파 사제들의 주장은 머지않아 그 결실을 맺었다. 1860년 레바논 산지는 다시 한 번 마론파-드루즈의 내전에 휩싸였고, 이는 곧 마론파 기독교도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로 이어졌다. 1858년부터 1860년까지 이어진 이 폭력 사태의 사상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국의 외교관 찰스 헨리 처칠(Charles Henry Churchill)에 의하면 총 11,000명의 기독교도가 학살되었으며, 20,000명의 과부와 고아가 고통을 겪었고, 100,000명의 난민이 발생했다[86]. 오스만 제국은 서구 열강들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메흐메트 푸아드 파샤(Mehmet Fuad Pasha)를 파견하여 질서를 회복했으나, 나폴레옹 3세는 1860년 8월 16일 보포르 도풀(Beaufort d'Hautpoul) 장군이 이끄는 6,000명의 파견군을 베이루트에 상륙시키며 마론파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 의무를 확인했다. 결국, '동방의 프랑스인'은 프랑스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군사적 개입의 근거로서 이용된 것이다.

프랑스를 선두로 한 유럽 열강들은 다음해 레바논 산지의 이중 까이마깜 체제를 폐지하고, 오스만 제국 최초로 아르메니아 가톨릭교도가 통치하는 특별자치주 무타사르리피야(Mutasarrifiyya)로 변모시켰다. 새로 임명된 기독교도 총독은 오스만 제국 내 다른 행정 구역의 총독들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집행권을 행사할 것이었으며, 특별 자치주로서 레바논 산지가 누릴 특

85) *Ibid*, pp. 91-92.
86) Churchill, *The Druzes and the Maronites*, p. 219.

권은 유럽 열강들에 의해 보장될 것이었다. 1864년 행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영구화된 무타사르리피야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유지되었고, 오스만 제국이 패전한 이후 프랑스의 보호령의 대레바논(Greater Lebanon)으로 다시 태어났다.

V. 결론

1102년, 마론파 교회는 십자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서구 기독교 세계와의 첫 접촉을 경험했다. 십자군들의 통치가 그들에게 얼마나 온건했는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십자군 축출 이후 '이슬람'이라는 적대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마론파 기독교도들에게 로마는 닿을 수 없는 이상향이었을 것이다. 레바논 산지라는 피난처는 그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었으나,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지중해 건너편의 로마였다. 그리고 마론파는 로마 교회에게 보호를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로마와 가깝게 만들어야 했다. 즉, 마론파의 정체성이 무엇이든지간에 로마와 일치하도록 '교화'되어야 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마론파 교회가 로마 교회와 연합을 이루었을 때, 마론파는 서구와 동방을 이어주는 교량으로서 로마와의 유대감을 십분 활용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치적·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레바논 산지의 권력구조에 변화를 일으켰다. 레바논 산지의 권력은 마론파를 통하여 서구의 영향력에 노출되었으며, 그것은 19세기 식민주의까지 연결되었다. 마론파는 서구의 식민주의적 야욕이 침투할 종교적 명분을 제공했고, 그 결과 '동방의 프랑스인'이라는 허구적 실체를 만들어냈다.

오늘날 레바논 정치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종파주의는 1840-60년 레바논 산지에서 출발했다. 그 시기 프랑스는 이집트 메흐메트 알리를 통하여, 이후에는 레바논의 마론파를 통하여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앞서 말했듯, 레바논 산지에서 발생한 마론파 아미르와 봉건 무까

타지 계급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오스만 제국에 서구의 자본주의가 침투한 결과였다. 레바논 산지와 베이루트의 경제는 이미 서구와 연루되어 있었으며, 마론파 교회 및 공동체의 정치적 지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1840-60년 마론파는 프랑스와 종교적 담론을 이용하며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레바논 산지에서 종교는 더 이상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마론파의 정체성은 종교를 이용한 서구의 힘이 작용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정체성으로 치환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태어난 '동방의 프랑스인'은 종교에 침투한 서구의 식민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문헌

유진 로건, 이은정 역, 『아랍: 오스만 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 (서울: 까치, 2016).

이성옥, 「마론파의 종교정체성 담론」, 『중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5).

이은정, 『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 (서울: 민음사, 2019).

Bouyrat, Yann, *Devoir d'Intervenir?: l'intervention humanitaire de la France au Liban, 1860* (Paris: Vendémiaire, 2013).

Churchill, Charles Henry, *The Druzes and the Maronites Under the Turkish Rule from 1840 to 1860* (London: Bernard Quaritch, 1862).

Firro, Kais, "Silk and Agrarian Changes in Lebanon, 1860-1914,"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22, No.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Haddad, Fanar, "'Sectarianism' and Its Discontents in the Study of the Middle East," *Middle East Journal* 71 (2017)

Hakim, Carol, *The Origins of the Lebanese National Idea, 1840-192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Hojairi, Mouannes Mohamad, "Church Historians and Maronite Communal Consciousness: Agency and Creativity in Writing the History of Mount Leban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1).

Harris, William, Lebanon: *A History, 600-20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Hitti, Philip K., *A Short History of Lebanon* (London: Macmillan Education, 1965).

James of Vitry, *Historia orientalis*, ed. Jean Donnadieu (Turnhout, 2008).

Lamartine, Alphonse de, *Voyage en Orient, 1832-33,* Vol. II, (Paris, 1835).

_____, *Voyage en Orient, 1832-33*, Vol. III, (Paris, 1875).

Lewis, Kevin James, *The Counts of Tripoli and Lebanon in the Twelfth Century: Sons of Saint-Gilles* (New York: Routledge, 2017).

Makdisi, Ussama, *The Culture of Sectarianism: Community, History, and Violence in Nineteenth-Century Ottoman Leban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Michaud, Joseph-François, Poujoulat, Jean-Joseph-François, *Correspondance d'Orient, 1830-1831*, Vol. VII (Paris, 1835).

Moosa, Matti, *The Maronites In History* (New Jersey: Goergias Press, 2005)

Murad, Nicolas, *Notice Historique sur l'Origine de la Nation Maronite et sur ses Rapports avec la France, sur la Nation Druze et sur les diverses populations du Mont Liban* (Paris: A. Le Ciére, 1844).

Óarb, Antwān Khūrī, *Al-Mawarinah: Tarikh wa-Thawabit* (Beirut: AlRābitah alMārūnīyah, 1998).

Ozavci, Ozan, *Dangerous Gifts: Imperialism, Security, and Civil Wars in the Levant, 1798-186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olk, William R., *The Opening of South Lebanon, 1788-1840: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West on the Middle Eas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oyraz, Buğra, "The Defi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Protectorate of France in the Ottoman Lands," Eskişehir Osmangazi Üniversitesi İlahiyat Fakültesi Dergisi 8.1 (Eskişehir: Eskişehir Osmangazi Üniversitesi, 2021).

Père Azar, *Les Maronites d'après le manuscrit arabe du R.P Azar* (Cambrai: F. Deligne et E. Lesne, 1852).

Rabah, Makram, *Conflict on Mount Lebanon: The Druze, the Maronites and Collective Mem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Rudolf Hiestand, "Die integration Der Maroniten in Der römische Kirche," *Orientalia Christiana Periodica* 54 (1988).

Rustum, Asad Jibrail, "Syria under Mehemet Ali,"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Vol. 41, No.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24).

Salibi, Kamal, "The Maronite Church in the Middle Age and its Union with Rome," *Oriens Christianus* 40 (1956).

_____, "The Maronites of Lebanon under Frankish and Mamluk Rule(1099-1516)," *Arabica* 4 (1957).

_____, *Maronite Historians of Medieval Lebanon* (Beirut: American University in Beirut Press, 1959).

_____, *A House of Many Mansions: The History of Lebanon Re-considered* (London: I.B. Tauris, 1989).

Traboulsi, Fawwaz, *A history of Modern Lebanon* (London: Pluto Press, 2007).

William of Tyre, *History of Deeds done beyond the sea*, Vol.1, translated by E. A. Babcock, A. C. Kr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3).

_____, *History of Deeds done beyond the sea*, Vol. 2, translated by E. A. Babcock, A. C. Kr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3).

〈Abstract〉

Invented 'Français de l'Orient'

Memories of Lebanese Maronites and France

Jeong, Yeon*

This paper delves into the concept of the 'Français de l'Orient,' invented by the Lebanese Maronite intellectuals and the French Romantic intellectuals in the 19th century. The downfall of Mehmet Ali Pasha in 1840, coupled with the banishment of Bashir Shihab II, triggered a crisis within the Maronite Church due to its clos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ties with Bashir II, the contemporary political leader. Seeking to restore the Shihab dynasty, the Maronite Church turned to Western powers for assistance, with France responding to their plea. Positioning itself as the protector of Catholics within the Ottoman Empire, France supplanted the Holy See. However, the defeat of Mehmet Ali by the Ottoman Empire and Allied forces also jeopardized France's influence over Syria. Amid this dual crisis, the Maronite Church and France embarked on constructing an imagined identity called 'Français de l'Orient,' drawing from the shared historical context of the 'Crusade.' This identity portrayed the Maronites, who had previously established a Christian state in the Levant with French crusaders, as the 'Crusaders of the East.' Essentially, the Lebanese Maronites were presented as brethren of France, united by cultural, religious, and historical bonds. Therefore, this paper posits that the 'Français de l'Orient' is a fictional entity created by the Maronite Church and France to serve their political interests, subsequently exploited by the French during their colonization of Syria

* Sog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y / suuun33@naver.com

and Lebanon.

Key words: Lebanese Maronites, French Colonialism, 'Français de l'Orient,' Crusades, Religious Discourse

원고접수일: 2023. 7. 30.
심사마감일: 2023. 7. 31.
게재확정일: 2023. 7. 31.